

# 겨울밤의 잊지못할 추억 선물

전라필하모닉소폰오케스트라  
'새로운 시작 송년연주회' 성료

사단법인 전라필하모닉소폰오케스트라가 '2018 새로운 시작 송년연주회'를 개최했다. 전라필하모닉은 전문음악인과 사회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60인조 색소폰오케스트라로 2007년 창단해 2008년 문화공연단체로 승인받아 사단법인등록을 했으며 평실공히 전북도 내 인지도 높은 악단으로 성장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9일 일요일 저녁 7시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을 관중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윤강기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전속단원 및 객원단원들이 함께 연주하며 겨울 밤의 낭만을 선사했다.

이스타의 개신곡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에 이어 차이코프스키의 대 히트곡 모음이 울려 퍼지자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강지에 JTV기상캐스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오현정이 명성황후 OST 나가거든과 메모리인 캣츠를 불렀고 서곡 아프리카심포니, 아랑훼즈협주곡 등 주옥같은 명곡들이 연주돼 청중들을 감동 시켰다.

안용순 전라필하모닉소폰오케스트라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의 즐거움을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데 어느덧 11주년이 됐다"며, "이번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현FRP산업, 예원 색소폰전문화원, 이디아커피 전주KBS점, 송천동 맛돌순두부, 주)선택(대표 함동승) 등 후원자들과 모든 단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라필하모닉소폰오케스트라가 지난 9일 일요일 저녁 7시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8 새로운 시작 송년연주회'를 개최했다.

콘서트의 음악감독과 상임지휘를 맡은 윤강기 광주교육대학교 색소폰 전담교수는 "아마 추어 연주자의 경우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레퍼토리로 연습해 흥미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평소 단원들에게 호흡과 주법, 음색, 텅잉(혀놀림), 연주자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 단원들이 연습때 보다 훨씬 더 좋은 연주를 보여 줬서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라필의 엘토색소폰 연주자이자 악정인 김선일씨는 "최고의 음악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연주에 임해야 한다는 감독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전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고 음악 연주를 통해 제인생도 힐링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필하모닉소폰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윤강기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김영아, 권미자, 이보인, 최배웅, 이창기, 송선형, 김성안 색소폰 파트장들을 비롯해 객원인 4인조 그룹 사운드와 협연으로 구성되어있다.

/송효철 기자

## 고창농악보존회 첫 송년콘서트

(사)고창농악보존회가 고창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는 15일 오후 4시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송년콘서트 '고색창연(高色敳演) : 고창의 색, 고창의 연희'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고창군장애인복지관에 후원한다.

이번 공연은 고창농악의 원로농악인들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멋과 맛을 고창농악 이수자들이 모여 농악의 백미 구정놀이를 설장구, 통북놀이, 고깔소고춤, 부포놀이를 선보이며 연행집단 '사이' 대표이자 '춤추는 남자들', '풍편' 등 다수 출연에 출연한 남기성씨의 허튼덧배기춤 초청공연까지 선보인다.

예부터 고창농악은 '간이 잘 맞는 농악'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맛의 진수였고, 저절로 흥겨운 흥겨움과 투박하면서도 섬세한 몸짓과 발짓이 특징이었다. 본래 고색창연(古色蒼然)은 '오래되어 예스러운 정취가 나는 모습'을 뜻하지만 이번 송년콘서트의 '고색창연(高色敳演)'은 전북 고창군의 아름다운 산하와 연희자들의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몸짓, 그리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의 멋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이번 공연은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날이다.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고창농악 송년콘서트, 그 첫 발걸음을 군민들의 응원과 격려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송년콘서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한국예총 고창지회 초대전 '우리동네 풍경 고창' 사진전 열려

25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서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한국예총 고창지회와 함께 '우리동네 풍경 고창' 사진전시회를 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간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연다.

'우리동네 풍경 고창' 사진전은 고창에서 향토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박현규 사진작가의 초대전으로 가장 깨끗한 원시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창, 역사와 문화와 전통, 그리고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고창,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으로 수 천년을 숨쉬어온 아름다운 고창의 풍경과 이웃들의 정겨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박현규 작가는 전국의 방방곡곡 아름답고 기억해야 할 곳들을 카메라에 담다가, 문득 그의 고향, 떠올리면 가슴 벅찬 고향-고창의 가장 빛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 사계절 아름다운 고창의 풍경을 담기 시작해 많은 공을 들여 유익하게 기록했다.



'우리동네 풍경 고창' 사진전시회 작품.

이번 전시는 고창의 모양성, 고인돌, 청보리밭, 선운사, 바다 등을 주제로 50여점을 한 폭의 사진에 담아 작품을 선보인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진전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동네 풍경 고창'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사진이라는 매체의 소통을 통해 고창의 모습을 새롭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주말은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사진.

## '희망찬 신년 맞이 음악회 함께해요'

군산시향, 내일 예술의전당서 정기연주회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은 내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는 음악회로 제13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군산시민의 사랑과 응원으로 성장한 시립교향악단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1부에서는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작은 도시에서 펼쳐진 사랑을 주제로 만든 '아틀르의 여인 모음곡 2번'이 연주되며, 명품 클래식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교향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박수정 마림바 연주자의 협연으로 사라사테의 '제고 이네르바이젠'을 연주하며, 섬세하고 화려한 테크닉을 지닌 마림바 연주자

박수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드림페스티벌 서양타악부문 대상과 음악협회 콩쿠르 1위 등 화려한 이력으로 관객들의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는 차이코프스키 서곡 '1812'로, 이 곡은 프랑스국가 '마르세이유의 노래'와 러시아 국가 그리고 비바람 소리와 대포 소리가 마구 뒤엉켜 있는 커다란 서사시의 형태로서 기쁨과 환희를 표출해내는 차이코프스키의 명곡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고, 현장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